

조만식의 ‘학병권유논설’ 위서

위서의 사회사 — 12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일제의 갖은 핍박과 압력 또는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진영을 지키며 기독교운동을 통해 민중교회와 각성에 앞장섰던 고당 조만식은 일제 말 총독부 기관지에 학병지원을 주장하는 한편의 글 때문에 친일파로 몰렸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준 글이었다. 하지만 문제의 글은 당시 《매일신보》 평양지사장이었던 고영한이 날조해 게재한 것이다. 해방 후 고영한은 조작사건에 대한 자책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총력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청년들을 지원병제라고 해 전쟁터로 끌어가고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다. 식량과 가축 심지어 늦그릇까지 군수물자로 빼앗아갔다. 그런 한편 조선의 명사들을 동원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조선청년들이 전장에 나가 싸우도록 글을 쓰게 하거나 연설하도록 했다. 물론 일제 말기 국내에서는 사회명사 대부분이 친일로 전향해 자발적으로 글을 쓰거나 연설하는 등 온갖 추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렇지만 소수의 양심적 인사들은 일제의 회유와 탄압을 물리치고 민족적 지절을 지키며 해방의 날을 기다리거나, 직접 항일전에 뛰어 들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고당 조만식은 대표적인 민족지사 가운데 한 분이었다. 일제의 갖은 핍박과 압력 또는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진영을 지키며 기독교운동을 통해 민중교회와 각성에 앞장섰다.

《매일신보》에 실린 조만식의 글 큰 충격 던져

그런 고당이 한 편의 글로 변절자의 대열에 끼게 되고 친일의 흠집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43년 11월 16일자에 사진과 함께 〈학도에게 고한다〉는 글이 실린 것이다. 당시 《매일신보》의 지면에는 이른바 명사들이 앞을 다투어 학병지원을 주장하는 글이 실렸다.

‘한국의 간디’로 불리며 엄혹한 시절에 식민지국민의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던 고당의 ‘변신’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일제가 노린 것도 바로 이런 점이었다. 고당의 논설은 당시 친일인사들이 하던 따위의 상투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지식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민족진영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고당마저 변절했는가 하는 분노와 아쉬움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해방 후에도 고당은 천려일실의 흠결이 남게 됐다. 고당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설을 살펴보자.

“학도에게 고한다.

대동아 전쟁은 바야흐로 나날이 처장가열하여 가고 있다. 일전 대본영 발표로 알게 된 부겐빌도 근해 항공전 전과같은 것은 과연 통쾌 무쌍한 대패사로 총후를 지키는 우리 국민은 이 험악한 황군 전과를 다만 통쾌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우리 반도에도 광영의 징병제가 실시될 것이니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전문 이상 학교에서 고등학문을 배우고 있는 청년학도들로서 어찌 광영을 앞두고 그대로 안한(安閑)히 있을 것인가. 이런 때 불연히 일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우리 구적(仇敵) 세계 인류의 원적(怨敵)인 미영(米英)을 격멸하는 결전장으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금년 61세로 오래전부터 병석에 누워 별로 세상사에 관여하는 바 없으며 또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학도 제군에게 나의 이같은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되나 청년학도 제군은 물론 나와 같은 사람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모두 자진하여 남아답게 나아갈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나는 병석에서 반도청년학도가 나라의 부르심을 받잡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고요히 이 땅 가운데서 가만히 눈을 감고 제군의 그 씩씩한 군장(軍裝)과 우렁찬 철각(鐵脚)의 보조를 가만히 머리에 그려보았다. 이 땅에도 장구한 동안 감추었던 무인(武人)의 늙름한 대오가 다시 소생되었다. 제군의 세대에 이루어지려 함을 목전에 보게 되었으니 이 이상 더 반가운 일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무인의 재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제군의 광영, 반도의 영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제군은 그 자질에 있어, 그 총명에 있어 반드시 반도의 광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 바이다. (중략) 현재 이 순간에도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일대 결전이 전개되고 있는 이 때 아직도 전쟁의 진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일신, 일가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황국의 남아, 아니 동아의 인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이 동아의 천지로부터 축출하여도 오히려

부족한 자일 것이다.

동아의 생(生)을 받고 더구나 이 정기 뺀친 반도 강산의 남아로 태어난 제군으로서 사나이답지 못하게 광영스러운 군문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는 자가 또 있을 것인가. 나는 하루바삐 반도 청년학도가 일거에 모두 가장 활발하게, 가장 용감스럽게 지원하기를 적격자 및 일반 학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때 나는 또 일반 학부형은 자기의 아들과 동생과 손자가 한번 전장에 나가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니 전장에 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죽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충후(銃後)에 있다고 해서 또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과 같이 항공술이 극도로 발달된 전시에 있어서는 충후와 전선의 구별은 없는 것이니 충후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충후를 지키는 국가방위의 전사임을 깊이 인식한다든가 또는 와석종신(臥席終身)하려는 어리석은 관념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같이 생각하면 생명은 실로 천(天)이 준 자연의 혜물(惠物)인 것이니 인간이 사사로운 임의로서 여쭙할 수도 없는 것이다. 불가(佛家)에서도 생사는 일여(一如)라고 하지 않는가. 생을 받은 사람은 한번은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이러한 생명을 국가비상시추에 반도를 위하여 또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하여 바치게 된 제군은 얼마나 광명스러운가(하략).”

“‘한국의 간디’로 불리며 엄혹한 시절에 식민지국민의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던 고당의 ‘변신’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일제가 노린 것도 바로 이런 점이었다. 고당의 논설은 당시 친일인사들이 하던 따위의 상투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당의 논설은 당시 《매일신보》 평양지사장 고영한이 날조해 게재한 것이다.”

신문사 지사장이 고당의 논설 날조해

고당의 논설은 당시 《매일신보》 평양지사장 고영한(高永翰)이 날조해 게재한 것이다. 그야말로 위서다. 날조 사실은 몇 가지 증언과 기록에서 드러났다.

당시 《매일신보》의 평양특파원으로 근무한 김진섭(金鎭燮)씨가 《대한언론인회보》 2000년 9월 1일자〈그때 그 시절—독취 한국 언론사〉에서 “조만식 선생 인터뷰 조작기사 쓴 평양 지사장 자살”이란 제목의 글에서 자세히 증언했다. 다음은 요지.

하루는 고영한 지사장이 나에게 고당 선생을 취재해오라고 지시했다. 급박한 전시상황에서 일제는 조만식 선생 같은 민족지도자들의 협조가 무척 아쉬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취재 지시를 받은 나는 고당으로부터 시국과 관련한 어떤 논평이나



고당 조만식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온 국민의 존경과 흠모를 받던 인물이었다.

언급도 받아낼 수 없으리란 걸 알았지만 찾아 나섰다. 마침 평양 시내 따님 댁에 와 계시던 선생께 찾아뵈 용건을 아뢰었더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나” 하시곤 함구로 일관하다가 댁으로 가셨다. 지사에 돌아와 “안 계시더라”고 허위보고할 수밖에 댄 도리가 없었다. “서울서 온 일류 기자가 그것도 못하느냐”며 크게 책망을 들었다.

며칠 뒤 본사의 독촉이 심했던지 고지부장이 사진기자 한 명을 데리고 직접 나섰고, 사흘쯤 뒤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렸다. 아무리 뜯어봐도 조작기사였다.

당시의 기사가 요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조만식=친일파’로 매도되는 꼬투리가 됐고 그때 신문 스크랩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진상은 이런 것이었다. 격동기에 기자의 권세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사례다.

자살로 친일언론인의 생 마감해

조국광복 후 서울본사에 근무하다가 김창문과 함께 평양엘 갔다. 가는 길로 고영한 지사장을 만나 지방에만 있지 말고 함께 상경하자고 권했더니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해서 헤어졌다. 다음날 새벽에 찾아갔더니 지사장의 어머니께서 “우리애가 어젯밤 자살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자살한 뚜렷한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며칠 지나니까 항간에 소문이 돌았다. 지사직원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한 명 있는데 당시 경방단장(警防團長)직도 겸하고 있던 고 지사장을 평소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협박을 일삼아서 괴로워했고, 또 조선생의 인터뷰기사 조작사건으로 해서 많이 자책하는 것을 봤다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무성했다. 한 편의 위서를 쓴 친일언론인은 이렇게 자살로써 자신의 과오를 씻은 것이다. ■